

현대오일,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

현대오일뱅크가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한다.

현대오일뱅크(대표 권오갑)는 경기도 평택의 가구전시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과 강원도 화천의 전 신주 충돌사고를 수습하면서 감진된 주민을 구하다가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각각 1000만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5일 발표했다.

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“평택 송탄 소방서 소속 고 이재만 소방위와 고 한상윤 소방장, 화천경찰서 상서파 출서 소속 배근성 경사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한 후 임직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”이라며 “성금은 임직원들의 급여 1%를 모아 설립된 <현대오일뱅크 1% 나눔재단>을 통해 전달되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1/12/05>